

追慕辭

한국 선종의 비조(鼻祖)이시며 우리 조계종의 종조이신 도의국사 각령전에 분향 배례하고 삼가 추모의 마음을 올립니다.

일찍이 불조께서 진리의 세계를 열어 중생에게 깨달음의 길을 가르쳐 주신 이래로 이 땅에 불연(佛緣)이 맺어지기까지는 800여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 불교가 전래된 이래로 수많은 선지식들이 깨달음의 문을 열었고, 중생들과 함께 자비로운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심오한 철학에 기반한 보편 윤리가 성립되고 발달된 문화와 새로운 문물은 단순한 종교적 의미를 넘어 고대 한국사회의 정치와 사회, 문화를 모두 아우르는 변화의 동력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땅의 불교는 뛰어난 교학적 성과를 바탕으로 동북아 불교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심인(心印)을 전수한 선법(禪法)이 전해지기 전에는 그저 외바퀴 수레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으니, 다시 선법이 전해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도의국사께서는 서당 지장선사와 백장 회해선사의 법을 잇는 오랜 수행을 마치고 마침내 이 땅에 선법을 펴고자 하였으나 시절인연이 익지 않았음을 알고 설악산 진전사(陳田寺)로 들어가 40년 동안 수도하다가 제자 염거(廉居)에게 부처님의 심인을 전하고 열반에 드셨습니다.

중생구제에 교문(敎門)과 선문(禪門)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지만 부처님의 마음이라는 선과 부처님의 말씀인 교가 함께 전해져야 비로소 불교가 바르게 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과 교의 바른 가르침이 1천년을 넘어 오늘까지 전수될 수 있었던 것은 때가 오기를 기다리며 인욕행을 마다하지 않으신 도의국사의 수행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종단은 내외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것은 수행자의 위의를 놓치고 청정한 계행에 대한 세간의 기대를 저버린 불찰 때문입니다. 지난 1700년 동안 청정한 수행가풍을 지켜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온 선대의 모습을 바로 보지 못하고, 시류의 변화와 흐름에 잠시 흔들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도 마르지 않으니, 이제 저희 후학들은 스스로를 경책하고 흐트러진 마음가짐을 바로 잡기 위하여 뼈를 깎는 노력으로 스스로를 성찰하고 계행을 바로잡아 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쇄신계획을 마련하였고 이후로도 근본적인 쇄신을 전면적으로 실시해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1700년을 이어온 수행가풍을 이어 청정한 계행을 바로 세우는 진정한 자성(自省)을 통해 구조와 제도에 대한 쇄신(刷新)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도의국사께서 때를 기다리며 40년 동안 인욕행을 하셨듯이 종도들은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성과 쇄신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오늘 종조 스님의 다례를 맞아 부끄러운 후학들을 대표하여 돈수참회 하오며 도의국사의 수행정신을 이어 진정한 자성과 쇄신의 모습으로 불자와 국민 모두의 기대에 부응하여 모두에게 감동을 주는 불교를 만들어 나갈 것을 서원합니다.

불기2556(2012)년 6월 21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분향